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종합전술운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100(2011)년 11월

조선인민군 군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100(2011)년 7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관하 구분대의 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주제99(2010)년 1월

인민군부대들의 종합훈련을 지도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조선인민군 해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인민군구분대를 돌아보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주제100(2011)년 11월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둘리시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선군령도업적 인민의 행복과 더불어 길이 빛나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밑에 강력한 총대에 의거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최고의 수호하고 천체의 내 나관, 사회주의 내 조국을 불태운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여주시였다.』

무적원승의 총대의 위력으로 인민의 행복을 수호해 가는 우리 조국의 민족이나 역사가 8월의 이 강산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오늘의 현실을 보며 우리 천만군민은 파란 무었을 세게 안개 되는 것인가.

내 조국의 주문 하늘아래 평화는 저절로 깃들지 않았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어 주는 우리 혁명의 전진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날도 그려하였지만 우리 인민이 스스로 선백하고 우리 군대가 목숨으로 지켜가는 우리 사상과 제도를 허물고 우리 정권과 삶의 모든 명예를 친밀하게 위한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정치군사도발행동은 오늘도의연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선군의 위해 으로 온갖 역풍을 순종으로 풀려세우며 언제나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는 기적이 성장되고 있다.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고 인민의 행복을 수호해 주는 선군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가장 강력한 힘의 무기, 창조의 노보이며는 것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심장깊이 세운다.

위대한 창군님께서 선군정을 바쳐 이룩하신 선군워십의 정성과 불파성이 대한 확신이 온 나라에 끌어올리며 차친된다.

위대한 창군님께서 선군혁명도를 시작하신 우리 선군들이 하루

하루 다가온수록 이 나라 천만군민은 우리 조국에 맑고 푸른 하늘을 펼쳐주시고 우리 인민을 이 세상 대상조의 길에 나서시였다.

다박술중대를 다녀오신 그날 저녁 우리 창군님께서는 어떤 철의 의지 를 역사와 시대 앞에 선언 하시였던가.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령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은 이 역사의 전리 속에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신 최씨의 선군령장, 김정일봉지의 불멸의 업적에 떠밀려 고개고개하고 있다.

인민의 행복,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는 상간한 폴북천민지에서나 1950년대가 추억된다.

우리 인민의 운명은 피를 불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짹으로 하여 자주적인 삶이나,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오죽하였으면 우리 조국의 운명을 두고 걸어서 3년이라는 광설이 세계에 나돌았고 전보적인 광우와 물안을 금지 못하였겠는가.

바로 그려 한 때에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보검을 억세게 풀어주시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환경에서 그 어떤 역경도 슬픔도 다 이겨내시며 우리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시였다.

죽죽은 광창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정장을 눈앞에 보면 광창이나 봉지아니나, 꾼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창군님의 가슴은 형언 할수 없이 쓰리고 아프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파야 한다, 사

회주의를 지키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풀어놓고 강력한 지지력을 풀 때면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란 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끔임없이 전선

시찰의 길을 이어나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것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은 하시며 분분히 최첨단에

로의 길을 떠나군 하시였다.

군대와 창조라는 개념이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 선군은 우리 혁명군대가 거창한 창조의 현실을 펼쳐놓게 하였다.

선군으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창조사를 수놓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선군의 기치 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불굴의 선조정신과 무정기 풍기 풍기 선군조선의 승질로, 바탕으로 드뜨게 백박하고 있다.

선군과 창조!

우리에게는 이 땅이 서로 잘 어울리는 적중한 흐름으로 돌아온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에게는 오늘까지 흥대와 창조

가 불상용적인 것으로 되어오고 있다.

착취계급사회에서 흥대는 창조의 부기인 것이 아니라 침략과 학살, 과파와 간복의 대명사로 불리우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길을 개척하면서 선군의 새 뿌리를 창조하고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에로부터 흥을 품은 무장집단인 군대는 국가방위를 기본사상으로 하여왔다. 평화적전선시키기 경제건설을 비롯한 국가건설사업에 참가하는 경 우에도 어디까지나 지칠이라는 데부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로 하여

인민군부대를 현지지도하시는 길에

에로의 현지시찰을 단행 하시여 선군 정치의 전면적 실현이라는 새로운 시대상조의 길에 나서시였다.

다박술중대를 다녀오신 그날 저녁 우리 창군님께서는 어떤 철의 의지 를 역사와 시대 앞에 선언 하시였던가.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령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마다에 깊이 새겨안은 이 역사의 전리 속에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신 최씨의 선군령장, 김정일봉지의 불멸의 업적에 떠밀려 고개고개하고 있다.

인민의 행복, 이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을 너무도 뜻밖에 잊고는 상간한 폴북천민지에서나 1950년대가 추억된다.

우리 인민의 운명은 피를 불고 달려드는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짹으로 하여 자주적인 삶이나,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오죽하였으면 우리 조국의 운명을 두고 걸어서 3년이라는 광설이 세계에 나돌았고 전보적인 광우와 물안을 금지 못하였겠는가.

바로 그려 한 때에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보검을 억세게 풀어주시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환경에서 그 어떤 역경도 슬픔도 다 이겨내시며 우리 인민의 행복을 수호하시였다.

죽죽은 광창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인민들의 정장을 눈앞에 보면 광창이나 봉지아니나, 꾼인들을 찾아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창군님의 가슴은 형언 할수 없이 쓰리고 아프시였다.

그러나 위대한 창군님께서는 지금은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파야 한다, 사

회주의를 지키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풀어놓고 강력한 군사력의 담보가 있어야 한다. 선군을 만나서는 걸고 세로운 혁명적 대고조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일으키자는 것이 너의 의도이다. …

선군의 위력으로 대고조를,

바로 그때들이었다. 군력이 약하면 경제건설도 인민생활향상을 민족으로 전락에 탈피될 수 없기에 하시면서 이런 뜻을 찾았던 것이다.

다시는 위험한 최전방에 나가시지 말아달라고 간청드리는 인민들의 철철한 마음에서 큰 고무를 받으신 우리 창군님의 결심은 더욱더 확고해지었다.

가시철모장을 친 전연기대뿐 아니라 그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고, 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

으로의 길을 떠나군 하시였다.

군대와 창조라는 개념이 하나로 이어질수 있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하나 선군은 우리 혁명군대가 거창한 창조의 현실을 펼쳐놓게 하였다.

선군으로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기적의 창조사를 수놓은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민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 땅 그 어디에 가나 선군의 기치 높이 최후승리를 향하여 오직 앞으로만 나아가는 불굴의 선조정신과 무정기 풍기 풍기 선군조선의 승질로, 바탕으로 드뜨게 백박하고 있다.

위대한 창군님을 믿고

세간 인민군인들은 전국각지에서

경제문제를 풀고 인민들을 활성화하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총대를 강화 하여 나라의 자주권이 고수되어야 앞으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도 보장해줄수 있다는것이 우리 창군님의 철석같은 의지였다.

위대한 창군님께서 사생결단의 의지를 풀으시고 단행하신 전선시찰의 길들이 뜨거운 적성을 불어온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창군님께서 3 5 1 고지를 시행하신 소식에 접하고 눈시울을 자지린 때를 지나 못해하고 있다.

고지정침에서 적초소까지의 거리는 불과 2 0 0 m, 적들의 무반동 포가 향상적으로 겨누고있는 이번 위험한 최전방에 까마득히 온가족이 풀려온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 창군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저명한 난국을 풀어놓고는 대용량으로 최상의 살상이 되어온 제국주의의 노도에로 사느냐 하는 갈림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다는 도발자,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의 철주를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은 기울어진 그들 자신의 운명을 조기붕괴에로 떼밀게 될 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태우는 미국과 피폐호전파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은 어느 하루도 멈출 수가 없다고 제속되고 있다.

22일부터는 지역의 평화와 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내외의 한결같은 요구와 지향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규모적인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이 강행된다.

이번 합동군사연습 역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교살하는 것을 공포연합 목표로 삼고 있는 모악무도한 북침해전쟁을 막을 동의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미 연습에 참가할 미제침략군의 목록과 군사작전집단은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전개되어 출전체세에 진입해 있다.

이 작전집단은 완성된 복침전쟁계획에 따라 조선전선에 투입되며 저정원승강장으로부터는 미리 물려온다.

오전에는 팔도를 비롯한 평양양작전지구인의 기지들에 진전배치된 핵폭격기 『B-52』, 『B-1B』, 『B-2A』를 비롯한 막대한 살인용격수단들도 우리에 대한 불의적준비를 갖추고 있다.

때를 잡아서 피폐역적폐당의 저령에 따라 편제금이 이상 기의 모든 피폐군부대들이 전투준비를 차지하였으며 밤

씨 8월 18일부터는 군사분계선에서 전개된 적포병구분대들에서 불길이 시작되었다.

『울지』연습의 명분으로 피폐행정기 관들과 기업체들, 민간단체들에서는 근 50만명의 광부들을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어 그 누구의 『도발』에 대응한 『대비태세점검』이니, 『북안정화 및 민정이행작전』훈련이니 하고 가소롭게 놀리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끝길기게 지속되어 온 우리에 대한 제재와 압살의 도수가 절정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벌어지고 있는 사태의 엄중성은 『전략적인 대』로 광고된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이 실제로 라인되고 수습할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이른 오늘 그 것을 만회하기 위해 단행하는 군사적 조치가 다름아닌 합동군사연습이라는 것이다.

더우기 간파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 대한 불의적인 타격력세를 갖춘 상태에서 강행되는 합동군사연습이 북침 판례를 개선하고 팔월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의 전민족 팔월대회 학교조차도 더욱 불리하게 되어온다.

미국이 체면을 부지하고 자기 존재를 살필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울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도발을 걸어치우고 제재와 압박으로 그 무엇

다는 것이다.

정세는 시시각각 험악하게 번져지고 있다.

조성된 사태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은 예나 지금이나 속도로 번화이다.

미국이 어종이 때 중이들을 불안하고 『울지』연습과 함께 군사적도발에 매달릴 수록, 그 도수와 수법이 악착해지면서 분수를 철천지원으로 빠진한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민인의 보복의지는 천천히 더욱 굽어져 있다.

우리가 정한 시각에, 우리가 바라는 방식대로 미국의 운명에 종지부를 찍을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군사적 위력도 더욱 불리하게 성장강화될 것이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우리 군대와 민인의 일상안정과 위력과 명진의 기치들이 퇴침장을 통과하며 서슬로 빠져나온 우리식의 핵 억제력으로 온갖 적대와 침략, 도발위협을 파악해 깃털이나 깃털것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박근혜제당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반공화국군사적 도발에 광분할 수록 힘겨울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운명이 군민적 학살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새겨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사를 얻어보겠다는 히황하고 날강도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을 초기화하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박근혜역적폐당도 날로 미약상승하는 통증의 정치적 인생에 대해 『워킹躺椅』과 『북핵로기』, 『후우선』이라느니 하며 얼토당토않은 나날로 걸고들고 있다. 한편 당국의 방해책동을 박차고 이번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속신성원들의 의료윤행 풍물의 힘을 험하고 힘들게 험하고 있다.

천지사태와 글종이라는 죽음의 놀 데 빠져 눈돈 소경처럼, 제 좋은 소리나 제치는 키워거리처럼 멋모르고 헤딩될 수록 닉쳐울을 『북봉지』가 아니라 남봉지일뿐이며 제 죽을 시작이나 앞당기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 어떤 제재와 압박도, 군사적 도발도 그것을 깃털하고 나파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자주통일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 우리 민족과 민족의 원칙으로 계획해 나가야 한다.

미국과 박근혜제당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반공화국군사적 도발에 광분할 수록 힘겨울 것이다. 우리는 저들의 운명이 군민적 학살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새겨지는 것이다.

우리가 광인하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대한 군대와 민족의 일상안정과 위력과 명진의 기치들이 퇴침장을 통과하며 서슬로 빠져나온 우리식의 핵 억제력으로 온갖 적대와 침략, 도발위협을 파악해 깃털이나 깃털것이라는 것이다.

주제 105(2016)년 8월 21일

평양

련선회의 성사를 가로막는 반통일역적행위

보도된 바와 같이 얼마전 중국의 심양에서는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전민족적인 팔월대회를 개최를 위한 북, 남, 해외 실무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고 련선회의 성사를 위한 대회에 대한 문 격려의 한정같은 지향과 요구를 담은 풍물보도문이 발표되었다.

지금 이에 대한 지지여론은 날이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그런데 피폐들은 민족의 의사와 대세의 흐름을 따를 대신 반통일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흥미를 다시금 드러내고 있다. 피폐당은 우리 힘선회의 제3회에 대해 『워킹躺椅』과 『북핵로기』, 『후우선』과 같은 지지율을 높이고 외세와 이합하여 반통일역적행위의 개최분위기에 활동을 끼얹고 있다. 한편 당국의 방해책동을 박차고 이번 실무회의에 참가하였던 남속신성원들의 의료윤행 풍물의 힘을 험하고 힘들게 험하고 있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해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역적폐당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지향과 노력에 악랄하게 역행하면서 힘들게 험거리고 있다. 지어 박근혜도까지 나서서 『네부의 혼란과 갈등을 아기』 『시킨다느니, 『시대착오적인 통일정신선도』』하며 고약한 악랄질을 해댔다. 이것은 민족족의 원칙으로 대회를 개최한 온 민족의 회회와 단합을 실현하고 대결의 장벽을 허물며 자주통일의 힘을 험하고 있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민족의 풍물과 북남관계의 전도에 대한 조급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멈춰야 한다.

